

“犬兎之爭 교훈 되새기자”

〈견토지쟁: 쓸데없는 싸움으로 제3자가 이익을 본다〉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서
총무원장 자승스님 강조

민족문화수호 원력 호소
정·관계 인사 초청 안해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올해 신묘년 토끼띠 해를 맞아 “견토 지쟁, 수수대토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토끼와 관련한 고사성어를 인용해 남북화해와 민족문화 수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의 편향적 종교정책으로 인해 불교계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토끼의 해를 맞으며 우리가 되새겨야 할 고사 성어로 견토지쟁(犬兎之爭)과 수수대토(守株待兎)가 있다”고 말했다.

견토지쟁은 둘 사이의 쓸데없는 싸움으로 제3자가 이익을 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

는 “지금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남북의 모습과 잘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며 “서로의 힘만 믿고 전쟁을 불사한다면 우리 민족은 파멸하게 되므로 이를 막는 길은 평화와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사성어인 수수대토는 우연히 얻은 이익을 노력 없이 계속 얻기를 꿈꾸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고사성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는 우리 불교계가 그동안 정부가 주는 물적 재원에 안주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당한 지원을 적선으로 여기는 위정자의 낮은 문화 인식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지원을 단호히 배격하고 스스로 노력해 우리의 문화와 문화재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난국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라며 “오천년 역사 동안 모든 고난을 이겨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혜송스님,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해

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협 소속 종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임희웅 포교사단장, 명호근 대불련 총동맹회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포교·신행단체 대표와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예년과 달리 정·관계 인사들이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종단협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날 법회 시작 전 일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을 요청했지만 정중히 돌려보냈다고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전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천왕문, 십시일반으로 복원”

총무원장스님, 범어사 화재현장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해 12월15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전소된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천왕문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복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일 해인사에서 열린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에 이어 곧바로 범어사를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천왕문 화재현장과 범어사 종합상황실을 살펴본 뒤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에게 복원불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부여당의 지원에 기대어 불사를 진행

하지 말고 범어사 사부대중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십시일반으로 불사를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성보 소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초기대응을 잘해 확산을 막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자들의 보시로써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복원불사비를 범어사에 전했다.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은 “가람을 잘 수호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범어사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 복원불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화재 당일 방재에 큰 역할을 펼친 범어사승가대

학 학인 스님들의 새해 인사를 받은 자리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해줘 너무나 소고하셨고 감사하다”며 대웅공양비를 전하며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함께 방화현장을 찾은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방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종단은 보다 철저한 방재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탄스님은 이어 “관계 당국은 조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것”이라고 보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어사=박인택 기자

종단 연수교육일정 확정
교육원, 종교평화 신설

조계종이 스님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재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연수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해 개설한 강좌 중 호응이 높았던 과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좌를 추가 개설했다”며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30개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과목은 △사찰부동산의 보존과 활용 △종교평화와 불교의 역할 △청소년명상지도 과정 △디지털카메라 사진교육 △불교와 자연과학 △종문 등이다. 지난해 개설돼 스님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스피치능력향상과정 등은 연2회 운영된다.

여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무비·지안·월호·일목·혜거스님 초청 신년대법회 봉행

24~28일, 불교진흥원 불교신문 BBS 공동주최

새해 큰스님들이 ‘제사를 위한 불교, E-GREEN BUDDHA 구현’을 연속 강의한다. 불교신문과 대한불교진흥원 및 불교방송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공동주최하는 신년대법회에 무비스님·지안스님·월호스님·일목스님·혜거스님 등 종단의 대표적 강백들이 각각 ‘E-GREEN BUDDHA’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현장 법문으로 들려준다.

신년대법회는 형식과 내용 모두 파격적이다. 5일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에 걸쳐 대한불교진흥원 3층 대법당에서 5명

의 강사들이 ‘E-GREEN 시대와 불교의 변화’를 주제로 각자의 불교관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첫날 강의하는 범어사승가대학장 무비스님은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을 역임하고 〈화엄경강의〉〈지장경강의〉〈법화경〉등과 전자책 〈금강경〉저서를 냈다.

지안스님은 동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거쳐 종립승가대학원 원장과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신심명 강의〉〈성지에서 온 편지〉〈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등의 저자이며 역서로 〈왕오전축국전〉을 냈다.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월호스님은 동국대 선학과 겸임교수를 지내고 현재 쌍계사승가대학 교수이며, 저서로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본마음 참나〉 등이 있다. 서울대 수학과 박사와 정 중 수행자가 된 일목스님은 프랑스 플렘빌리지와 영국 아마라와미 등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제파와나 선원장이며, 저서로 〈윤회와 행복한 죽음〉을 냈다.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은 한암대종사문집 편찬위원장과 탄허대종사문집 편찬위원장,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거쳤다. 김충찬 기자



‘불교중흥 大토론회’ 연다

27일부터 12월까지 매월 개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법석이 열린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와 스님들을 초청해 사회제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아젠다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토론회에서는 12가지의 주제가 논의된다. 주제선정소위원회(위원장 도범스님)이 선정한 상반기 주제는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1월27일) △한국불교교단과 국가(2월23일)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할 불교적 가치(3월30

일) △21세기 현대사회의 희망에 대한 불교의 응답1-생명과 생태문제에 대한 불교적 응답(4월27일) △21세기 현대사회의 희망에 대한 불교의 응답2-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4월25일) △사회정의를 위한 불교의 자비실천(6월29일) 등이다.

오는 27일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전법풍토와 타종교 속 불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찾는 자리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발제하고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광범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대토론회의 시작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종회 의장 보선스님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은해사·백양사 종회의원
재선거 각각 4명 입후보

은해사와 백양사의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후보등록 결과, 덕조·원조·태관·법일스님(이상 은해사)과 의연·혜용·만당·원광스님(이상 백양사)이 각각 입후보했다.

지난 5일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스님들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은해사와 백양사 종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17일 실시된다.

김하영 기자

“이전등록자만 후보대상”
법규위, 은해사관련 판결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는 이전 선거당시 후보등록한 스님들만을 후보자로 인정해 실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스님)는 지난 7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안내

종단에서는 한문불전(선어록과 대승경전 등)을 더욱 깊이 있게 연찬하기 위해 작년까지 운영된 ‘불교서울전문강당’을 전문교육기관인 ‘서울불학승가대학원’으로 전환하여 2011년 3월 개원합니다. 종단의 대강백 스님들을 모시고 2년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오니 스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스님 : 본종 비구·비구니 스님
- 재가자(청강) : 본종 신도중 소지자 및 불교대학 졸업자
- 학제 및 교육장소 - 학제 : 2년 4학기, 학기당 32회 수업
- 수업시간 :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9시 통학교육
- 교육장소 : 법련사(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번지)
- 교과과정 및 교수사

학기	교과목	강의횟수	교수사	일정
1학기	도서	10회	지안	조계종 고시위원장
	서장	12회	종목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선가귀감	10회	종범	前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능엄경	12회	해남	통도사 율주
2학기	기신론	8회	각성	화엄학 연구원장
	금강경	12회	혜거	금강선원장
	유식30송	12회	혜거	금강선원장
	유미경	10회	해남	통도사 율주
3학기	법화경	10회	무비	前 조계종 교육원장
	화엄경	32회	지안	조계종 고시위원장

※ 교수사 강의횟수, 일정은 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료자 특전 -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을 인정함.
- 등록금 - 스님 : 1학기당 700,000원 - 재가자 : 1학기당 1,000,000원
- 접수기간 - 2011년 1월 10일(월)~1월 28일(금)
- 신청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우측 하단 배너창을 클릭하시어 첨부자료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가자인 경우 신도증 사본
※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대학 졸업자인 경우 졸업증서 사본 첨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주 소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전 화 : 02-2011-1802, 1808 - 팩 스 : 02-732-4926
- 홈페이지(원서교부) : www.buddhism.or.kr - E-mail(접수처) : eunga@buddhism.or.kr